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4, pp. 100-108,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4.100

융복합시대에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백선미[1*], 손귀옥[2], 박유미[3]
[1]온새미로심리상담센터 센터장, [2]혜명지역아동복지센터 임상심리상담원, [3]사회복지단체 가나마을 팀장

The Influence of Smart-phone Dependence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the Convergence Era: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

Seon-Mi Baek[1*], Kwi-Ok Son[2], Yu-Mi Park[3]
[1]Director, Onsaemiro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
[2]Clinical Psychological Counselor, Heymyung Children's Welfare Center
[3]Team-leader, Social Welfare Organization Gana Maeul

요 약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경로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4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총 221부로 실증적인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대학생의 일상생활 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이 높으면 대인관계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일상생활 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이 높으면 진로태도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진로태도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마트폰 의존도와 진로태도성숙 관계에서 모두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융·복합,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 진로태도성숙, 대인관계 문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dependence on smart-phone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problem in the analysis path. For this purpose, the study implemented a survey on students of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do area and carry out a structural equation for empirical verification with a total of 218 copies. As a result, first, high level of daily life disturbance and virtual world orien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interpersonal problems. Second, high level of daily life disturbance and virtual world orien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have a negative effec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Third, interpersonal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had a negative effect on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they were found to be fully mediated in relation to smart-phone dependence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various programs promoting the career attitude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Convergence, Daily life disturbance, Virtual world orientati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terpersonal Problem

*Corresponding Author : Seon-Mi Beak(candai@naver.com)
Received January 30, 2019 Revised March 22, 2019
Accepted April 20,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1. 서론

인간에게 있어 진로의 선택은 인생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맺게 되는 대인관계는 삶 전체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어떠한 진로,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집단에서의 대인관계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대인관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긍정적인 자원[1], 즉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좌절과 문제를 해결해 가는 힘이 될 수 있다[2].

특히 전 생애 가운데 대학 시기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보다 성숙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3]. 또한 사회진출 바로 전 시기로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경험적 지혜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의 시기이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발달하는 스마트 기기로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 등 모든 분야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4]. 특히, 보다 쉽고 간편하게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성장으로 인간관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관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공간적 제약 없이 관계를 확장시키고, 유지하게 된 것이다[5]. 오프라인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던 타인과의 관계형성 및 인맥관리 기능을 SNS로 신속한 정보전달, 개인관심사 공유, 정보의 개방 등의 특징으로 간편하고 손쉽게 가능하도록 해주었다[4,6,7]. 즉, 타인과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던 직접적 소통의 방식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정보를 제공・전달・습득하거나, 관심사를 공유하며 소통하게 된 것이다. 결국 현재 스마트폰 시대는 온라인에서의 인간관계가 오프라인의 관계를 대체하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로 모여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답을 찾으며 정보를 공유하던 방식이 스마트폰으로 검색(14년 57.5%→17년 64.1%), 웹서핑을 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게 된 것이다(14년 23.4%→17년 43.4%)[6,8].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끊거나 또는 그 주제를 회피하거나 그냥 타인의 말을 듣고 인정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분명 스마트폰의 발달은 삶에 유익을 주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에서의 긍정적 사회적 지지와 공감과 같은 감정교류를 배제하고 하는 온라인 대인관계의 방식은 더욱더 개인이 중심이 되고 타인과의 대화법을 상실하면서 공동체 속에서의 진정한 인간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 인해 사회집단 속에서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개인의 삶이나 사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5,7]. 또한, 스마트폰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 전국 만 19세~59세 스마트폰 보유자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무려 64.3%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61%)보다는 여성(67.6%), 그리고 젊은 층(20대 73.2%, 30대 62.4%, 40대 62.4%, 50대 59.2%)에서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보다 많이 느꼈으며, 스마트폰을 집이나 회사에 두고 나오는 일이 생길 경우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10명 중 6명(58.5%)에 달했다. 10명 중 6명은 화장실에 갈 때도 스마트폰을 가져가고,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6,9,10]. 스마트폰의 의존도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현상의 하나로 가족은 물론 친구도 신경 쓰지 않게 되는 현상인 '퓨빙'(phubbing)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현상으로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11]. 또 하나 뇌의 조절능력이 떨어져 갈등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가상세계 지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12,13].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 대인관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SNS의 과다이용 및 중독경향성은 정보의 오남용, 사생활 침해, 언어폭력, 의사소통의 제한, 대인관계의 질과 친밀감 저하[7], 오프라인 대화의 단절,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 저하, 인간관계의 공감능력 저하 등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보인다고 하였다[14].

현시대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여 변화를 주도해 가고 있는 20대에게 스마트폰은 관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의 피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면 현실에서의 대인관계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대학시기의 진로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며,

이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개인이 속한 환경의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진로를 탐색,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통해 경험적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여 진로를 탐색해 나가면서 진로태도성숙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로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인관계 방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겠다.

진로태도성숙이란 자아의 이해와 직업세계의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탐색,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라고 하겠다[10]. 이 능력은 개인이 속한 집단에서 기대되는 행동과 일치하느냐에 따라 평가되며, 계속적으로 변화하며 단계마다 주어지는 과업(준비과정, 행동능력)의 수행여부에 따라 촉진시키게 된다[15].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개인이 속해있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아 정적, 부정적으로 발달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에서는 인간관계를 최소화하고, 인간관계의 감정적 교류를 단절하며, 개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공간에서는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11]. 집단에서 원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학습하여 진로의 성숙도를 높여 가야 하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기의 대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영향이다.

대학 시기는 대인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다. 다양한 관계와 소속집단이 기대하는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받으며 자신의 역할에 따라 진로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성숙도가 높아져 가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14].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도에 의한 대인관계의 문제가 진로태도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성은 대인관계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둘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셋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성과 진로태도성숙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는 매개효과가 있을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융복합시대에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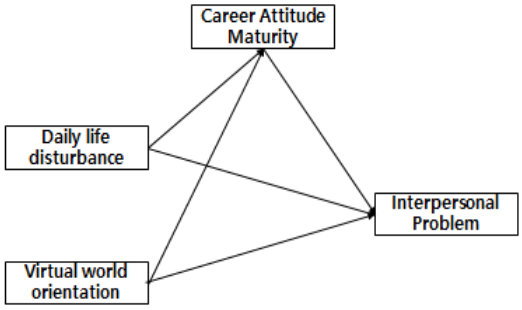

Fig. 1. Proposed Model

2.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진로성숙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모집단에서 조사대상자 선정은 비확률표집인 유의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질문지는 수도권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배포하여 수거하였다. 질문지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250부를 배부한 후 221부를 수집했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 3부를 제외하고 본 연구에 부합되는 218부를 사례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본 척도는 NIA[16]에서 개발한 표준화된 성인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요인이 일상생활 장애(5문항), 가상세계 지향성(2문항), 금단(4문항), 내성(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4보다 작아 타당도가 떨어져 금단과 내성문항을 제외하고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을 스마트폰 의존도라 정의하였다. 가상세계 지향성 문항은 역코딩 처리하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이루어졌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 중 일상생활 장애의 Cronbach's alpha값은 .845, 가상세계 지향성의 Cronbach's alpha값은 .606로 나타났다.

2.3.2 대인관계 문제

Lee[17]가 번안해 표준화하고 타당화된 Inventory of Problems-Short Circumplex From(IIP-SC)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2문항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1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대인관계 문제의 하위요인 중 거만, 악의, 냉정함, 회피, 비주장, 착취, 과잉보호, 참견 등 부정적인 요인인 8가지 하위척도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위는 Likert 5점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문제의 Cronbach's alpha값은 0.873이다.

2.3.3 진로태도성숙도

본 척도는 Lee[17]이 개발한 척도를 Nam[18]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은 5개의 하위요인(결정성, 목적성, 확신성, 준비성, 독립성)으로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요인적재량 값이 .4 미만인 3개의 문항을 제외한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요인 총합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진로태도성숙이라 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 범주는 Likert 5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으로 구성되었고 역문항은 응답범주를 역코딩하여 실시하였다.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잘 형성된 것을 뜻하며, 진로성숙의 Cronbach's alpha값은 .894이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을 활용하여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진로태도성숙도와 관련된 변수들 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량분석을 하였다. 연구모형을 이루고 있는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과 다중공선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일상생활 장애 및 가상세계 지향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 있어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성 검증과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Baron & Kenny[19]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변수 간 매개효과를 살펴본 후, 본 연구모형이 활용한 자료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검증하였으며, 변수의 간접효과 검증은 Sobel test를 적용하여 확률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18)

division		frequency	percent
gender	man	90	41.3
	woman	128	58.7
grade	Freshman(1st Grade)	46	21.1
	Sophomore(2nd Grade)	57	26.1
	Jinor(3rd Grade)	54	24.8
	Senoir(4th Grade)	61	28
pin money	moer 100,000won~less than 200,000 won	36	16.5
	moer 200,000won~less than 300,000 won	58	26.6
	moer 300,000won~less than 400,000 won	54	24.8
	moer 400,000won~less than 500,000 won	38	17.4
	moer 500,000won	32	14.7
fa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827	45.4
	professional college degree or higher	988	54.2
mother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920	50.5
	professional college degree or higher	895	49.1
family composition	parent+ child	1603	87.9
	other	220	12.1
income	less than 24 million won	244	13.4
	over 25, million won~ less than 36 million won	374	20.5
	over 37 million won~ less than 48 million won	389	21.3
	over 48 million won~ less than 60 million won	490	26.9
	over 61 million won	326	17.9
economic level	I can not live	78	31.1
	moderate	75	34.7
	a good buyer	63	29.2

먼저 대학생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90명(41.3%), 여학생은 128명(58.7%)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은 '1학년'이 46명(21.1%), '2학년'이 57명(26.1%), '3학년'이 54명(24.8%), '4학년'이 61명(28.0%)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생의 전공학과는 절반 이상이 인문사회학부로 146명(67.0%)이고 용돈은 '50만원 이상'이 32명(14.7%)으로 가장 낮았으며,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58명(26.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 소득 수준은 '나쁘다'가 24명(19.1%),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31명(60.1%), '좋다'가 응답한 경우도 63명(28.9%)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생이 생각하는 주관적 경제소득 수준은 대다수가 '보통이상'이라고 하였다. 직전 학기 성적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 75명(3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불만족'은 16명(7.4%)으로 제일 낮은 응답을 보였다.

3.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전체적인 흐름을 기술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표준편차)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의 평균값은 2.318(표준편차 .616)을 보여주고 있다. 대인관계 문제 평균값 22.230(표준편차 .722), 가상세계 지향성의 평균값 1.828(표준편차 .694), 진로태도성숙의 평균값은 3.331(표준편차 .751)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

variables		N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Smart-phone dependence	Daily life disturbance	218	1.00	3.75	2.318	.616	-.169	-.419
	Virtual world orientation	218	1.00	4.00	1.828	.694	.604	-.209
Career attitude maturity		218	1.00	4.32	2.230	.722	.450	-.421
Interpersonal problem		218	1.64	5.00	3.331	.751	.344	-.335

본 연구의 경로모형 분석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왜도 값의 통계량과 첨도 값의 통계량을 확인해 보면,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작으며, 첨도의 절대값 또한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각 변인들을 가지고 경로분석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피어슨(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는 가상세계 지향성(r=.585, p<.01) 및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문제(r=.227,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진로태도성숙(r=-.164, p<.01)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상세계 지향성은 대인관계 문제(r=.392, p<.01)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고 진로태도성숙(r=-.189, p<.01)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대인관계 문제는 진로태도성숙(r=-.306, p<.01)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Smart-phone dependence	①	1			
	②	.585**	1		
③		.227**	.392**	1	
④		-.164*	-.189**	-.306**	1

**p<.01, Daily life disorder =①, Virtual world orientation=②, Interpersonal Problem=③, Career Attitude Maturity=④

3.2 연구모형 분석결과

3.2.1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Table 4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의 분석 단계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9].

첫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회귀분석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와 대인관계 문제를 같이 투입해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문제가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지 검토한 후, 독립변수인 일상생활 장애가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검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Table 4의 1단계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β=.227, t=11.896, p<.01)는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 장애는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을 5.1%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β=-.164, t=-2.454 p<.05)는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상생활장애는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을 2.7%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장애와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문제를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상생활 장애는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 있어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β=-.099, t=-1.506, p>.05), 대인관계 문제는 진로태도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β=-.284, t=-4.309, p<.001). 이처럼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문제가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와 진로태도성숙 간에 있어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각 변수의 설명력은 10.3%로 나타났다.

Table 4.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

Variable	B	β	t	F	R^2	adjusted R^2
① → ③	.266**	.227	3.448	11.886*	.051	.047
② → ③	-.199*	-.164	-2.454	6.021*	.027	.022
①, ② → ③	-.121	-.099	-1.506	12.537***	.103	.095
	-.295***	-.284	-4.309			

*p<.05, **p<.01, ***p<.001, Daily life disturbance=①, Interpersonal problem=②, Career attitude maturity=③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될수록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성숙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문제는 부정적인 매개요인이 됨을 볼 수 있다.

3.2.2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 지향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Table 5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지향성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첫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 지향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 지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회귀분석을 이용해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 지향성과 대인관계 문제를 같이 투입해 매개변인인 대인관계 문제가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에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지 검토한 후, 독립변수인 가상세계 지향성이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검증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 지향성(β=.392, t=6.300, p<.001)은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상세계 지향성은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을 15.3% 설명하고 있다. 2단계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 지향성(β=-.189, t=-2.850 p<.01)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상세계 지향성은 종속변수인 진로태도성숙을 3.6% 설명하고 있다. 3단계에서는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독립변수인 가상세계지향성과 매개변수인 대인관계 문제를 함께 투입하였다. 그 결과 가상세계 지향성은 진로태도성숙 간의 관계에 있어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영향력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으며(β=-.082, t=-1.189, p>.05), 대인관계 문제는 진로태도성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β=-.274, t=-3.927, p<.001). 이처럼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문제가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지향성과 진로태도성숙 간에 있어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3단계에서 종속변인인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각 변수의 설명력은 9.9%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으로서 가상세계를 지향할수록,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성숙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문제는 부정적인 매개요인이 됨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모형의 독립변수들 간에 유발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검토해 본 결과, 공차한계 값이 0.1 이상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발생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Problem

Variable	B	β	*t*	F	R^2	adjusted R^2
① → ③	.408***	.392	6.300	39.696*	.153	.150
② → ③	-.205**	-.189	-2.850	8.125**	.036	.031
①, ② → ③	-.088	-.082	-1.169	12.040***	.099	.091
	-.285***	-.274	-3.927			

*p<.05, **p<.01, ***p<.001, Virtual world orientation=①, Interpersonal problem=②, Career attitude maturity=③

위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인관계 문제의 매개효과 유의성 분석은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 문제가 진로태도성숙 간에 있어 확률적으로 유의한 값을 Table 6을 통해 볼 수 있다. 즉,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완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6. mediatet effect verification

Path	Sobel test statistic	p
Daily life disturbance → Interpersonal problem → Career attitude maturity	-2.687	.004
Virtual world orientation → Interpersonal problem → Career attitude maturity	-3.315	.000

4. 결론 및 제언

스마트폰의 빠른 성장과 보급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 증가에 대한 대인관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대학생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으로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유발될수록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성숙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문제는 부정적인 매개요인이 됨을 볼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 문제가,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가상세계 지향성과 진로태도성숙 간에 있어 완전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학생이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으로서 가상세계를 지향할수록,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 진로에 대한 성숙이 발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 문제는 부정적인 매개요인이 됨을 볼 수 있다.

즉,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는 스마트폰 의존도의 하위요인인 일상생활 장애와 가상세계 지향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완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대학생은 일상생활의 장애 유발로 대인관계를 힘들어 한다는 연구결과처럼,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형성이 어렵고, 타인에 대한 정서적 교감이나 지지하는 공감능력이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타인과 발생하는 갈등을 다루고 해결하는 능력이 낮아, 갈등이 발생했을 때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 형성과 더 나아가 진로태도성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즉,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면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진로결정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 시기는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무엇보다 대인관계가 중요한 시기이다[12]. 대인관계의 형성은 관계 속에서 인정과 정서적 지지는 물론, 다양한 타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경험적 지혜를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절한 스마트폰 사용은 온라인에서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획득을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존도가 높아지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연구결과에서도 나

타난 것처럼 스마트폰 의존도의 증가는 일상생활 장애로 대인관계, 진로성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의 확산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온라인세상에서 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 그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막는 것만으로는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존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학생들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관리하고,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자기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발생하게 되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방법론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르게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상호작용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고, 오프라인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결통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7].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증가하면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마트폰 중독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의존도 증가 예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지역을 한 곳으로 국한하였기에 일반화 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보다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한계가 있다. 스마트폰 의존도는 대학생들만의 문제로 볼 수 없기에,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다양한 대상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대상자들의 강점과 환경, 즉 개인적 특성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도의 변화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변수에 대해 연구였으나 스마트폰 의존도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변인들의 변화에 따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REFERENCES

[1] Cohen &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2] Y. K. Kim. (2008). The Effect of University Freshmen's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Making Level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4),* 1191-1210.

[3] K. P. Hong & H. S. Jeon.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7(1),* 034-067.

[4] T. H. Kim & M. S. Kang. (2014). An Analysis on the Status and Degree of Recognition for Smart Phone Syndrome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18(4),* 941-948.

[5] G. H. Han & I. H. Yi.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ion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4),* 683-697.

[6] I. S. Choi, D. H. Yoon & S. A. Chae. (2017). *2018 South Korea Trend.* Korea Economic Daily.

[7] Y. S. Lim, K. Y. Kwon & S. J. Han. (2017).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Ego-resilience, Career Decision Level, and College Life Adaption on Smart-phone Addic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7(4),* 919-931.

[8] Y. M. Shin & B. K. Lee. (2015). On-off Lin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mong Subgroups of College Students Smart-phone Addiction. *Forum For Youth Culture, (44),* 67-95.

[9] Y. O. Chang. (2017). The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on University Student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4(7),* 235-255.

[10] S. J. Chang. (2018). *The Effect of High School Students' Smart-phone Use and Smart-phone Dependenc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Education.

[11] Y. K. Jeon. (2011).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Development and Decision-Making Type.* A Study on the Student Life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2]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426675

[13] http://www.goodtms.net/news/articleView.html?idxno=8306

[14] S. H. Lee.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Dispositional Variables, Career Barrier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2),* 399-417.

[15] K. H. Lee & J. C. Han.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Psychological Varial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0(1),* 167-189.
[16] https://www.nia.or.kr/site/nia_kor/main.do
[17] G. H. Lee. (1997). *A High School Student's Relationship with Career Pathos and Psychological Variables.* Yonsei University Doctoral Thesis.
[18] S. H. Nam. (2009).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Parent's Rearing Attitude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University Stud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19]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7.

백 선 미(Baek, Seon Mi) [정회원]

· 2014년 2월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상담심리석사)
· 2019년 2월 : 온새미로심리상담센터 센터장
· 관심분야 : 가족, 부부,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군인, 장애
· E-Mail: : candai@naver.com

손 귀 옥 (Son, Kwi-Ok) [정회원]

· 2012년 8월 :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가족상담·치료학과 (상담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혜명지역아동복지센터 임상심리상담원
·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가족, 부부
· E-Mail: osolovesko@hanmail.net

박 유 미(Park, Yu-Mi) [정회원]

· 2017년 2월 : 한세대학교대학원 심리치료상담학 (심리상담석사)
· 2017년 5월 ~ 현재 : 사회복지단체 가나마을 팀장
· 관심분야 : 가족, 여성, 노인, 군인, 청소년
· E-Mail : ymp8934@daum.net